

# 1950년대의 濟州文學

金 永 和\*

## 목 차

1. 머리말
2. 概 觀
3. 梁重海의 詩
4. 金鍾元의 詩
5. 金大炫의 詩
6. 崔玄植의 小說
7. 맺음말

## 1. 머리말

필자는 20세기 전반기의 제주문학을 개략적으로 살핀 일이 있다." 이 글은 이어서 1950년대의 제주문학을 살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50년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주인들의 文學作品을 가능한 한 모아 놓고, 그 文學 속에 나타난 제주인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데 역점을 둔 생각이다. 따라서 가치판단보다 문학 속에 나타난 제주 사람들의 의식에 더 무게를 두고 살펴 보려 한다.

## 2. 概 觀

1948년에 일어난 4·3사태로 제주도는 문학 담당층인 新知識人을 상당수 잃

\* 濟州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 1) 김영화, "20세기 전반기의 제주문학", 『제주문화연구: 김영돈 박사 화갑기념 논총』(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p. 277.

었다. 해방 후 문학 교육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중등학교가 몇 군데 세워졌으나 4·3사태를 전후해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1940년대 후반기는 지식의 공백이 불가피했다. 그런 상황 속에 1950년 6·25가 일어났다.

6·25가 일어나자 서울 등지의 지식인들이 상당수 제주에 피난을 왔다. 그 가운데는 桂鎔默, 張壽哲, 崔玄植, 玉巴一, 金墨 등 문인이거나 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끼어 있었다. 이들이 제주에 있는 동안 1952년에 『新文化』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여기에 문학 작품도 실었다. 이 무렵부터 제주인과 피난 온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계몽운동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적극적으로 잡지를 만들고, 문학 지망생들과 어울리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한 몫을 했다.

그 때의 상황을 양중해는 이렇게 쓰고 있다.

많은 피난민이 제주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을 때 詩나 小說을 쓰는 文人은 이곳 문학청소년으로서 신비스런 존재였다. 문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자기도 그러한 문인이 되기를 꿈꾸며 부지런히 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부지런히 작품을 써 내어 評을 받으며 문학 공부를 했던 것이다. 그날 그러한 문학도들이 오늘의 제주문단의 기둥으로 성장하고 있다.<sup>2)</sup>

해방 전후의 암흑기, 4·3전후의 혼란기를 거치고 1950년대 초에 10대나 20대가 된 제주의 청소년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있어 문학은 현실의 참담함을 잊게 해주는 하나의 도피처다. 1950년대 제주의 청소년들이 문학에 대한 열기는 이런 배경을 가졌다. 선배 문인들을 가지지 못한 당시의 문학 청소년들에게 문인들이 “신비스런 존재”로 비친 것은 그 때문이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문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된 것이다.

1952년 5월 제주대학이 개교를 보았다. 이 대학 개교 당시 국문학과와 영문학과를 설치했다. 따라서 문학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여기에 입학하여 문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문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독자층도 넓어졌다. 후일 이 두 학과 졸업생 중 상당수가 문단에 등단했고, 문단에 나

2) 양중해, “제주문단의 형성과정”, 『제주문학』 19집 (1990.10), p.11.

### 1950년대의 濟州文學

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자층으로 남아 문학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이곳을 졸업한 사람들이 중고등학교의 교단에 서서 후진 양성을 하는 한편 문학 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문학백일장'이나 '문학의 밤' 등을 개최하는 데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앞장 섰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제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었다.

1956년 문학 동호인들이 모여 《제주문학동호인회》가 조직되고 이어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지부》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기관지 『濟州文化』가 1957년 6월에 발간되었다. 이 기관지에는 詩에 洪貞杓의 「翁中石」, 梁重梅의 「晚鍾」, 姜通源의 「PHOENIX」, 소설에 李鳳俊의 「눈 나리는 날」, 趙明哲의 「末伏날」 등이 발표되었다. 이 무렵 <제주문화제>, <탐라문화제> 등이 열렸고, 그 때마다 문학백일장, 시화전, 시낭송회 등을 열어 문학 활동을 자극했다.

1950년대는 동인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도 했다. 1953년 6월에 양중해, 최현식이 참여한 『黑珊瑚』, 1958년 6월에 양중해, 강동원, 김종훈이 참여한 『樵子林』, 1959년 6월에 김대천, 부택훈 등이 참여한 『문주란』, 1959년 10월에 양순필 주도의 『詩作業』 등이 나왔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동인지는 『樵子林』이다. 여기에 양중해의 「구름」, 「天像」, 강동원의 「遁走曲」, 「재떨이」, 「입맞춤」, 김종훈의 「漢拏山」, 「메아리」 등의 시가 발표되었다. 또 고등학생들 사이에도 『靈室泉』, 「별무리」, 「石座」, 「蒼林」 등이 나왔다. 이렇게 동인 활동이 활발했던 이유는 첫째, 당시의 청소년들 사이에 문학 열기가 있었고, 둘째, 작품 발표 의욕에 비해 발표 무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동인지를 내어 작품을 발표했던 것이다.

1950년대는 詩에 김대천(1959), 양중해(1959), 김종원(1959), 소설에 최현식(1957)이 각각 문단에 등단했다. 1925년 金志遠이 문단에 등단했지만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것에 비하면 1950년대에 등단한 사람들은 詩集, 小說集을 낼 만큼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그 점에서 1950년대는 제주문학의 흐름에서 볼 때 획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梁重海의 詩

양중해는 1927년 제주시 출신으로 제주대학 국문학과를 나왔다. 1950년대 부터 「黑珊瑚」, 「樵子林」 등의 동인으로 참여하여 시를 발표해 오다가 1959년 7월 「思想界」에 「그늘」을 발표하여 등단했다.

그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 줄곧 살면서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시를 써 왔다. 1963년에 시집 「波濤」(신조문화사), 1992년에 시집 「漢拏別曲」(도서출판 제주문화)을 내 놓았다.

그의 시집의 목차를 보면 그는 '제주의 시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한라산, 한라야, 한라별곡, 섬, 마라도, 형재도, 이어도, 등대, 제주항에서, 연북정에서, 만세동산, 삼무공원, 관덕정, 동백, 협죽도, 흑산호, 굴, 억새꽃, 유채밭에서, 潛嫂圖……. 이상 열거한 것들은 제주의 자연의 일부, 제주의 역사의 일부, 또는 제주인의 삶의 일부로 언제나 제주 사람들 곁에 있는 것들이다. 양중해는 그것들을 소재로 시를 써 왔다. 그것은 고향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의 시에 그것이 나타난다.

굴꽃이 향기로워  
굴의 노오란 열매가 탐스러워  
가난 속에서도 착하게 살아온 마을

뒷동산의 능선에  
아버님의 산소가 마련되던 날  
알았다. 나는  
고향 산하의 분신임을.

— 후 략 —

— 「故郷」에서

이 시 속의 화자는 시인 자신일 것이다. 아버님을 묻고 돌아서면서 이 시인도 언젠가는 아버님처럼 저렇게 제주의 흙 속에 묻힐 것이려니 생각하고 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전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고향의 아버님 곁에 자신도 묻힐 것이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

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 山河의 분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고향의 흙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굴나무 한 그루를 심으며  
고향의 흙내음을 말한다.  
보리나 고구마도 자라게 하고  
사오기나 노가리도 키워온 흙내음을.  
구덩이를 파노라 헤쳐 놓은 땅에서  
아련히 풍겨 나오는 이 향기,  
먼 조상들의 살 내음이 서려 있구나.

-중 략-

먼 훗날을 기약하며  
한 그루의 굴나무를 심는다.  
오늘 나도 살아 있다는 감격으로  
고향의 흙 내움에 흠뻑 취해 버린다.

-「흙 내움」에서

고향의 흙 속에 굴 나무를 심으면서 흙 냄새에 흠뻑 취하는 것은 이 시의 話者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시인은 대신 노래한다. 그 노래 속에는 번뇌나 잡사가 없다. 여유와 부드러움이 흘러 넘치고 있다.

흙을 내려다 보다가 고개를 들어 산쪽을 바라본 시인은 문득 산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가 바라본 산은 한라산이다. 그는 「한라산」, 「한라별곡」, 「한라야」 등 한라산을 두고 세 편의 시를 썼다.

산이 그리우면  
산으로 간다.  
외할머님 찾아뵙는 기쁨으로  
틈만 나면 간다.  
한라산에는

제주도 토박이 풀과 나무들만이 살고 있다.

-중 략-

제주도 사람의 기쁨과 설움과 함께  
끈질기게 살아온  
토박이 풀과 나무들이 나를 반긴다.

한라산의 숲 속에는  
제주도 토종의 새와 짐승들만이 살고 있다.

-중 략-

제주도 사람이 살아온 눈물과 한숨과 함께  
대대로 심을 지켜온  
제주도 토종의 새와 짐승들이 나를 반긴다.

한라산에 다녀온 날 저녁은  
말못할 유족함으로 가슴이 벅차  
고향이 너무 좋아  
조상님들께 감사한다.

-「한라별곡」에서

제주에 사는 사람치고 한라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산에 있는 나무들, 짐승과 새들, 어느 것 하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을 이 시인은 '말못할 유족함으로 가슴이 벅차'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이 시인 혼자의 정서가 아니다. 제주에 사는 사람들, 제주를 고향으로 가진 사람들의 정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시인은 발길이 닿는 대로 제주도의 이곳저곳을 찾는다. 제주항 부두에 가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고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는 여인을 보고 이렇게 노래한다.

-전 략-

연락선은  
뱃고동 소리로 울고  
바다도 소리를 죽여  
나즈막히 흐느끼는데  
하늘색 치마 저고리

1950년대의 濟州文學

의 女人은  
홀로 뱃머리에 서서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선녀와 같다.

—「濟州港에서」에서.

부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그려져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고 망연히 서 있는 여인의 모습에서 仙女를 본 것은 그가 제주여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중해는 자연에서 눈을 돌려 濟州의 역사를 생각한다. 「觀德亭」, 「戀北亭에서」, 「만세동산」, 「廢故」 등은 이 섬의 역사와 관계가 깊다.

울음도 없고  
말씀도 없다.  
갈 것은 모두 가고  
올 것은 아득하고,  
신도 사람도 버린  
황폐한 지역.  
산마루 구름에는  
우레가 식고  
하늘은 예대로라  
저만치 높푸른데,  
무슨 뜻으로  
무성한 잡초만.  
고개 넘어 찾아온  
머먼 시절을  
무너진 울 안에는  
비석이 하나 서고  
식은 잿더미 위에  
절레꽃 피는  
임자없는 세월을

버꾸기는 우네.

- 「廢故」전문.

1948년 4·3사태는 제주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태를 둘러 싸고 논란도 많았고, 아직도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사태는 김석범, 현기영, 현길언, 오성찬, 고시홍, 김석희, 한림화 등 많은 사람들이 소설로 다루었다. 그만큼 제주인에게 무거운 사태였기 때문일 것이다. 양중해는 그 사태를 겪고, “울음도 없고, 말씀도 없다”고 극한 상황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태 후의 제주를 “신도 사람도 버린 황폐한 지역”이라고 탄식한다. 이것은 이 시인 혼자만의 정서가 아니다. 그 사건을 겪었던 제주 사람들의 정서가 이 시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康寬順에 의해 「梅女の 노래」가 나온 바 있다. 양중해도 잠수(해녀)의 세계를 다룬 두 편의 시를 발표했다. 「潛嫂圖」, 「잠수들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 전 략 -

타는 눈길을 수심으로 던지며  
어족과 더불어 헤엄을 치다치다  
숨이 차 아슬아슬하면  
물 위로 떠 올라 휘파람 분다.

부풀은 태약으로 목숨을 띄워  
물결에 뗏다 잠겼다 살림을 띄워  
그 소용돌이 위를 알몸으로 흐르면  
바다 밖으로 넘쳐나는 바다.

- 중 략 -

갈매기도 아내를 찾아 우는  
사랑스런 풍속을 가로 질러  
빛이 바랜 포구로 돌아오는 기선은  
기척도 없이 어찌자고 연기만 뿜고,  
입술을 깨물고 옷고름 씹던  
언뜻 생각키우는 다짐이 있었겠지.



## 1950년대의 濟州文學

다시 하늘을 차고, 잠수는  
물 속으로 물 속으로 숨비어 내려 간다.

— 「잠수도」에서.

잠수하는 잠녀들을 바라보며 그녀들의 삶을 묘사한 시다. “부풀은 태왁으로 목숨을 띄워, 물결에 떴다 잠겼다 살림을 띄워”라는 대목은 잠녀들의 삶을 압축하고 있다. 목숨을 태왁에 맡기고 있는 아슬아슬하고 처절한 삶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갈매기들이 짝을 찾아 우는 사랑의 풍속을 지켜 보면서 멀리 떠나간 임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별할 때 다짐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 시인이 잠녀들의 세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일찍이 제주의 남자들은 본토로, 일본으로 떠나간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 때문에 제주의 여인들의 슬픈 사연을 이 시인은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梁重海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 살면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단속적으로 시를 발표해 왔다. 그의 시의 소재는 거의 제주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그는 말 그대로 “제주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시 속에 나타난 정서는 그의 것이면서 동시에 제주인의 것이기도 하다.

## 4. 金鍾元의 詩

김중원은 1937년 제주시에서 출생, 서라벌 예술대학을 거쳐 동국대학 국문학과를 나왔다. 1957년 「文學藝術」의 추천과 1959년 「思想界」신인 작품으로 문단에 등단했다. 그는 학원, 주부생활, 영화잡지, 사랑, 조선일보 등 신문잡지의 기자, 편집장 등을 거쳐 태창영화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한편 시를 발표해 왔다. 1970년 시집 「강녕이 辭說」(삼애사)과 1988년 시집 「光化門行」(제삼기획)을 내 놓았다.

그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幼少年 시절을 제주에서 보내고 성년 이후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 따라서 제주는 고향으로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의 시에 그것이 나타난다.

밤만 되면 바닷가엘 간다.  
船票도 끊지 않은 맨몸  
떠나올 때처럼 빈손으로  
파종한 보리밭  
그 초겨울이  
濟州邑 三徒里  
축구공 대신 돼지 실개 붙어 차던  
까까머리 친구들은 다들 어딜 갔나.  
  
달리다 보면 탐스레 치솟는  
골목의 꼬리연  
노을 걸린 먹구슬 나무엔  
우리들 幼年이 주렁주렁 열리고

- 중 략 -

탐 아래 단추 공장 하얀 달빛 속에  
油菜꽃 간지럽고  
신명난 할아버지 회갑 잔치  
내가 살던 묵은성 옛집

- 중 략 -

車票도 사지 않는  
성급한 출장  
떠나 있어도 늘 머무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西埠頭를 찾는다.  
눈을 감으면 숨막히는 서울은  
모두 고향 땅이다.

- 「幼年散調」에서.

이 시에는 두 종류의 거리가 있다. 첫째는 과거와 현재 - 즉, 유년과 현재와의 거리, 둘째는 제주와 서울과의 거리다. 화자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과 고향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그리움이다. '축구공 대신 돼지 실개 붙어 차던 시절', '제주시 삼도동'이 아니라 '제주읍 삼도리'의 시절은 제주의 1940년대나 1950년대다.

돼지 실개를 붙어 축구를 하고, 꼬리연을 날리면서 유소년시절을 지냈던 제

1950년대의 濟州文學

주인이라면 이 시 속에 담겨진 정서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김종원의 정서이면서 동시에 제주인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잊혀져 가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과의 거리는 그래서 남는다.

제주의 봄은  
조랑말 타고 내려 온다.  
  
서귀포에서 달려 와  
잠시  
북국민학교 지붕에 숨었다가  
흠뻑 떠나고 마는  
서툰  
우리들의 술래  
  
그건 머무는 게 아니야.  
차라리 스치는 바람일 뿐.  
  
꽃샘 추위  
파랗게 시린 바다  
온통 흔들어 놓고  
통증으로 열리는  
부끄러운  
너의 속살  
  
그건 돌아나는 게 아니야.  
열 두 달 아물다가 터졌을 뿐.  
  
고향의 봄은  
향긋한 난시 맛이다.

-「제주의 봄」에서

이 시에서도 화자는 제주를 멀리서 생각하고 있다. 제주의 봄이 짧음을, 그리고 꽃샘 추위와 파랗게 시린 바다를 배경으로 새싹이 터질 듯 돌아나는 제주의 봄의 정경을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 연, 고향의 봄을 '난시 맛'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주 사람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는 세계다. 특히 봄에 난시(냉이)를 캐러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다.

그의 시는 과거로 계속 달려 간다.

예전엔  
울타리가 없었지  
바다를 끼고 돌면  
섬 모두가  
확 트인 트락

돌아온 滿船엔  
은통  
- 자리회 냄새였지.

油菜꽃 이랑  
부서지는 바람  
아, 그 따가운 소금벌 속에  
줄창 자라기만 하는  
우리들의 눈금.

옛날엔  
군침도는 빙떡이 있었지.

- 「龍潭里」에서.

울타리가 없는 집, 자리회 냄새, 군침 도는 빙떡 - 제주의 정서와 민속적 정취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현재가 아니다. 예전이고 옛날이다. 그러므로 김중원은 자리회나 빙떡을 눈 앞에 두고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유소년 시절, 1940년대나 1950년대의 제주를 연상하면서 시를 쓴 것이다. 따라서 제주를 일정한 거리에 두고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타버려싱게.  
아홉 살 적 풋대추 찾아 기어 오르던  
안마당의 대추나무도  
다 타버리고 어싱게.

- 중 략 -

할아버지는 오척 단구  
술 담배 입도 못 대신  
대쪽 같은 선비.

집 한 채 다 타고 잿더미만 남던  
사삼 사건에도  
눈시울 한번 안 적시더니

-중 략-

아,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던  
내 할아버지는  
지금 봉아오름을 떠나고 어싱계.

타버려싱계.  
굴만 알고 곡식 모르던  
빛마루의 버선발  
꿈심던 뒷마당의 죽순도  
다 타버리고 어싱계.

-「奉蓋洞」에서.

문충성은 “제주섬의 아픈 역사인 4·3사건과 더불어 큰 피해를 입은 제주시 중산간 마을인 고향을 소재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빼어난 작품”<sup>3)</sup>이라고 이 시를 평가하고 있다. “타버려싱계” “찾아볼 수 어싱계” “떠나고 어싱계”를 조용히 반복하는 話者의 목소리에 김종원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 그것은 잃어 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다. 봉개동은 그의 선대의 고향이다. 고향 마을과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도 사건 현장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점에 서 있다.

金鍾元은 제주를 시의 소재나 원천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오늘 현재가 아니라 1940년대나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간다. 옛날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그것이 그의 정서다. 그것은 그의 것이면서 동시대를 살았던 제주 사람들의 정서이기도 하다.

## 5. 金大炫의 詩

김대현은 1920년 구좌읍 출신으로 1942년 文化學院 전문부 문학과를 나왔

3) 문충성, “한 완전주의자의 꿈꾸기 - 김종원 형의 시와 인간”, 김종원 시집, 『광화문행』 (1988.10), p.177.

다. 해방 전 만주의 신경 대동신문사에 근무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충청남도에서 정착했다. 논산농업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대전광명실업전수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요람별문학동인회, 호서문학회, 한문문학동인회, 대룡문학회, 보리수문학동인회 등을 통해서 문학 활동을 했다. 1954년 시집 『靑史』(청문사), 1958년 시집 『옥피리』(정음사)를 내었고, 1959년 『사상계』를 통해 문단에 등단했다. 1962년 시집 『皐蘭草』(교학사), 1963년 시집 『石窟庵』(교학사), 1979년 김대현시선 『보리수』(시문학사)를 간행했다.

그의 시 가운데 제주와 관련된 시는 「고향」, 「제고장 사투리를」, 「漢峯山」, 「樅子林」, 「日出峰」 등 몇 편 되지 않는다. 그런 시들을 살펴 본다.

못은 곳곳에 남아  
고여서 있고  
땅 두터움 비로소 느끼는 자욱  
자욱 그리던 내 고향 내 발바닥이

—「고향」에서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할 때는 대개가 그리움 같은 정서를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김대현의 고향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바닥에 갈아앉아 있는 정서를 은근하게 내비친 그런 것이다. 그것이 그의 고향에 대한 정서의 한 단면일 것이다.

제고장 사투리를 느끼거든  
느직한 나이에  
외롭게 빛나는 눈물을 느끼거든  
토장 국물로  
머리털이 회거든,  
아들 딸 이꼴고 물길 건너  
다녀들 가지게,  
산짐승들 한 바다로 들린  
높은 메에서 울다가  
목을 추기려 내려가는 소삼한 길로,

1950년대의 濟州文學

내려가면 일월을 두고 白雪에 묻혔던  
白鹿潭 물들이  
모여들면서 온갖  
하소를 바다에 바다물 두르듯  
풀어 주리이다.

- 「재고장 사투리를」에서

나이가 들고, 머리털이 희어지고, 아들 딸들이 자라면 사람들은 인생을 되돌아 보게 된다. 그럴 때 태어난 고향은 큰 비중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다분히 애상적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김대현은 어떤 편이냐 하면 조용하면서도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마음에 쌓인 정서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록담 물들이 모여 들면서 온갖 하소”를 바다에 풀 듯 마음의 용어리를 풀자고 이야기한다. 나이가 든 후의 그의 세계의 한 단면일 것이다.

그는 한라산과 비자림과 일출봉을 노래한다. 그러나 담담한 자세다. 뜨거움 같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불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趙載勳은 “이 시인의 사상적 주조음이 되고 있는 불타의 정신은 제2시집 『옥피리』에서 배태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의 『고란초』에 와서 큰 전기가 되어 제4시집 『석굴암』 등의 세계로 수렴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김대현은 1971년 대한생활불교회를 설립하여 『생활불교총서』를 간행하는 등 불교의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에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김대현은 고향과의 왕래도 거의 없이 지낸다. 그는 문인협회 충남지부장을 지냈으며, 충남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는 제주인이면서 동시에 충청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재훈, “김대현의 시 세계”, 김대현 시선 『보리수』 (1979. 6), p. 11.

## 6. 崔玄植의 小說

崔玄植은 1924년 함경남도 흥원에서 출생하여 함흥사범학교를 나왔다. 1945년 월남 후 서울에서 잡지사 기자 등을 하다 6.25때 제주에 건너왔다. 1950년대 초 계몽목 등과 『新文化』를 발간하는 데 참여했으며, 종군하여 제대 후 서울에 거주하다 1961년 제주에 건너 와 오늘까지 살고 있다. 그가 제주에 살게 된 것은 제주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16 후 제주도 공보실, 제주신문 편집국장을 지내다가 1980년에 그만 두었다. 그는 군에 있을 때인 195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노루」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선 후 1973년 소설집 『紅裳』(현대문학사)과 1985년 『黑猫日記』(창원사)를 내 놓았다.

그의 소설 가운데 「새비어」, 「먼 산(細川橋)」, 「紅裳」 등의 주인공들은 함경도에서 제주까지 흘러온 실향민들이다. 소설을 달리하면서도 이 인물들은 동일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성이 있고, 최현식의 분신 또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하다.<sup>5)</sup> 제주에 정착해서 제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망향에 젖는다.

나는 눈에 힘을 주어 '먼 산'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십년 전의 우리 마을의 뒷동산이었다. 남녘 기슭의 소나무밭을 제외하면 잔디 일색의 벌거숭이였다. 꼭대기에서 여남은 살의 소년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 (중략) 소년들은 전쟁놀이로 기분을 바꾼다. 편을 갈라, 산꼭대기를 차지하는 공방전이 벌어진다. 겨루기를 여러 차례, 마침내 지쳐서들 쓰러진다. 모두들 잔디 위에 벌렁 나딩군다. 후우후우, 숨결을 가라앉힌다. 더욱 고 바람소리가 귀에 또렷해진다. (중략)

그 후로 '먼 산'은 이따금 사십여년 전의 뒷동산으로 모습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이어지는 것이었다.

아름든 '먼 산'으로 해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의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는 일이 적이 흡족스러웠다.

5) 좀 더 자세한 것은 김영화의 『現代作家論』(문장사, 1983), p.220, 참조.



이 인용문은 「먼 산」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인공이 돌을 수집하러 다니다가 세천교에서 돌을 하나 주었다. 그 모양이 우연히 고향의 뒷동산과 닮았다. 그것을 계기로 잠시 잊고 있던 고향이 떠올라 감상에 젖는다. 이런 내용은 「紅囊」에도 나온다. 서울에 사는 육촌 누이 동생이 결혼을 하고 신혼 여행으로 제주에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고향의 하늘과 그 정거장을 생각하는 버릇”이 되살아난다.

이런 望郷의 情緒는 「望郷三題」, 「해바라기의 추억」, 「고향」 등에도 나타난다. 이것은 고향을 떠나 제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이고, 최현식의 정서다. 따라서 고향을 떠나 제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新濟州人의 정서를 최현식의 소설을 통해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이다.

「夾竹挑」, 「겨울 소나기」 등 그의 대부분의 소설들은 제주를 배경으로, 제주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흥미있는 것이 있다. 첫째 濟州의 기후와 풍토, 둘째 濟州인 의 기질을 생각해 본 대목이다.

남해를 안고 있는 이 거리는 한국의 한 도청 소재지. 고도(古都)라고 그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밝히기는 어려울 터이지만, 일찍이 성곽을 가졌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시민들은 스스로의 전통을 이천년의 유구(悠久)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남쪽 나라, 추풍령이나 그 북쪽에서처럼 계절의 바뀜이 이곳에서는 그렇게 명확하질 못하다. 겨울국화와 배추꽃이 함께 어울려 있다고 말하면 둔감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봄은 단숨에 열리는 멋이 제격일 터인데, 이곳의 그것은 언제 열렸고 닫혔는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투명한 것이다. 쾌청(快晴)은 오뉴월의 유채꽃 철과 여름의 한 동안일 뿐 한 해의 거의 사분의 삼의 일수는 태양을 접해내지 못한다. 특히 겨울은 건강한 사람도 건디어내기가 힘이 드는 악성의 것이다. 늦가을의 하늘을 덮는 갈가마귀떼가 떠나면서 열리게 되는 이 한철은 어두운 회색으로 이루어진 거리를 완전한 보호색의 범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연일을 머뭇머뭇 태양을 가리우고 있게 마련인 구름은 간혹 진눈깨비의 겨울소나기로 돌변하는가 하면 폭풍설로 바다와 구름을 호되게 헐뜯어 놓곤 하는 변덕인 것이다. (중략)

이 거리 사람들의 기질을 요약해서 말하면 ‘근면’ ‘약간의 표한성’ 그리고 ‘협동정신의 결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십수년 이래로 외지사람들은 기질 중 또 하나의 단점으로 ‘폐쇄적이다’를 말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남의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외면이 유별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저 이십년 전의 소요 때 삼만의 회생을 저질렀다는 유혈의 자국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분별이 안 된 날죽음의 판국에서는 '모른다'가 최선의 처세 요령이 되는 수밖에. '나의 알 바 아니다' 이러한 소외 풍조는 육십구년의 그름을 맞는 이 즈음에도 별로 달라진 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거리의 미관이나 인명 제일 같은 이른바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무관여로 잘 표현되고 있다 하겠다.

이것은 「겨울 소나기」의 첫 머리 부분이다. 그가 1961년 제주에 정착한 이래 살면서 느낀 제주의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런 견해에 수긍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읽는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신채주인이 본 제주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데 흥미가 있다.

최현식은 제주의 자연을 언어로 그려내는 데 탁월하다.

멀리 수평선에는 관탈, 추자의 섬들, 일망무제의 청명일 때에는 서부 다도해의 산그림자도 아슴푸레히 잡히는 것이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비치는 구름도 재미가 있다. 빗자루로 쓸어 놓은 듯 하늘 높게 흐르고 있는 은빛 구름, 소나기 구름의 거대한 봉우리, 낮게 밀려오는 비구름이며가 제너름의 운치로 잠시나마 속사를 잊게 해 주는 것이다.

—「오늘의 椅子」에서.

선뜻, 이미에 느껴지는 매운 바람과 동시에 백설의 산정이 창공 속에 눈앞에 막아섰다. 순간,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숨소리를 가다듬는 침묵에 파묻혔다. 한달 반 전의, 그 죽음의 눈보라가 어쩌면 이런 적요로 바뀔 수가 있을까. 비정할 만큼 아름다운 순박으로 빛나고 있는 산정을 향해 굳어져 버린 것이다.

—「산나비」에서.

문득 씻은 듯한 한라산정... 항구에서의 뱃고동 소리가 나의 얼마 동안의 설레임과 주위의 고요를 흔들었다. 소리는 멎고 창 안 밖은 다시 조는 듯한 그 무구에 잠긴다. ... 안개는 해안선을 한계로 저편을 덮고 있었다. 거리의 크고 작은 등불들은 물기로 뽀얗게 젖었다.

—「紅裳」에서.

60년대 이후 발표한 그의 소설은 대개 제주도가 배경으로 나온다. 그가 본 제주의 풍경, 제주의 분위기, 그리고 제주의 정서 등이 그의 소설 도처에 나온다. 한라산, 안개, 나비, 꽃, 눈 등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여러 풍물들을 잘 그려 놓고 있다. 그 점에서도 그의 문학은 제주문학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 7. 맺음말

1950년대는 제주문학사에서 획기적인 시대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문학의 부흥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조선시대의 문학과 일제 강점기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게 이루어지면 1950년대의 문학에 대한 재조명과 더불어 그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동인 활동 등 문단사적인 조명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학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제주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려는 사람들은 작품에 대한 깊고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정신세계, 내면 세계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김대현 시선 『보리수』 1979. 시문학사.  
김종원 시집 『강냉이 사설』 1970. 삼애사.  
김종원 시집 『광화문행』 1988. 제삼기획.  
양중해 시집 『파도』 1963. 신조문화사.  
양중해 시집 『한라별곡』 1992. 도서출판 제주문화.  
최현식 창작집 『홍상』 1973. 현대문학사.  
최현식 소설집 『흑묘일기』 1985. 창원사.  
예총제주지회편, 『제주문화예술백서』 1988. 2.  
제주도편, 『제주도지』 3권 1993. 2.  
『제주문학』 2, 18, 19집.